

<48> 참아내는 마음이 없다면

양장에서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허물이며 가장 나쁜 일입니다. 온갖 장애가 생긴다고 하였다. 올바른 법을 듣지 못함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장애, 사탄 소견을 좋아하여 험하고 나쁜 길로 떨어지는 장애, 몸에 병이 많이 생겨 부처님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는 장애, 지혜가 모자라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와 같은 것들을 성내 과보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를 내지 않으려면 성내는 마음을 풀이켜 '참아내는 마음'이 필요하다. <선가귀감> 48장에서는 '참아내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수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출 대를림을 하였다. 그 모습에 감동 받아 많은 사람들이 비결을 장씨에게 물었다. 장씨는 말없이 참을 '인忍' 글자를 백 번 써 보았다고 한다. 이 '참아내는 마음'이 아발로 아홉 대에 걸쳐 모든 가족들이 한 집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법이었다.

자비·인욕은 맑고 깨끗하여 고요한 마음자리 '나'라는 실체 없어 경계 사라지고 역경 없어

참는 마음이다. 보통 인욕에는 다섯 단계가 있다고 한다. 첫째 '복인(伏忍)'은 어떤 곤란이나 역경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이 남아 있지만 안으로 숨기고 바깥으로 그 마음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참는 것이다. 둘째 '신인(信忍)'은 '인욕'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것이다. 셋째 '순인(順忍)'은 깨달음의 길을 따라 가며 모든 역경을 참아내고 생멸이 없는 부처님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넷째 '무생인(無生忍)'은 모든 망념이 사라져 모든 법이 다 생겨날 것이 없음을 알므로써 '인욕' 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 '적멸인(寂滅忍)'은 모든 망념이 다 끊어지고 사라져 텅 빈 중만 그 자체로서 맑고 깨끗하여 고요한 마음자리이니 '인욕'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

는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깨달음'으로서 부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行門雖無量 慈忍爲根源 忍心如幻夢 辱境若龜毛. 수행 방법 셀 수 없이 많이 있어도 / 자비인욕 그 마음이 뿌리가 되니 / 참는 마음 꼭두각시 꿈을 꾸는 일 / 욕을 보는 이 현실은 거북이의 털.

'자비(慈悲)'에서 자(慈)는 온 중생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여 모든 즐거움을 주려는 것이고, 비(悲)는 중생의 근심과 괴로움을 안타깝게 여겨 그 근원을 뿌리 뽑아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는 중생을 어찌해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부처님의 마음이다. 보통 자비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생을 인연하여 배푸는 '중생연자비(衆生緣慈悲)'이니, 모든 중생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배푸는 자비로서 범부들이 일으키는 자비이다. 자비심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차별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 번뇌가 아직 숨어 있는 수행 초 단계의 자비이다. 둘째 법의 이치를 인연하여 배푸는 '법연자비(法緣慈悲)'이니, 모든 법의 성품이 공(空)임을 깨달아 무아(無我)의 이치로써 배푸는 수행 중간 단계의 자비이다. 셋째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도 배푸는 '무연자비(無緣慈悲)'이니, 온갖 차별을 멀리 떠남으로써 분별이 없는 마음에서 배풀어지는 절대평등 부처님의 자비이다. 이 자비는 범부나 성문 연가 보살이 일으킬 수 없는 자비이므로 대자대비(大慈大悲)라고도 한다. 인욕은 어떤 곤란이나 역경을 당하더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성을 내지 않고 참아내는 마음이다. 마음을 닦아 '깨달음'

에 들어가고자 수행하는 방법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도 자비와 인욕이 그 근본이 되어야 올바른 수행이 된다.

부처님의 자비와 인욕은 주객(主客)이 사라져 텅 빈 중만 그 자체로서 맑고 깨끗하여 고요한 마음자리이다. 이 자리에서는 주(主)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지 않으므로 '나'라는 주체로서 '참아내는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경계'가 사라지면 객(客)인 어떤 경계로서 곤란이나 역경이 있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참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꼭두각시가 꿈을 꾸는 것과 같고, 어떤 곤란이나 역경이 없는 거북이의 털과 같다. 언제 나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 할 것이 없다.

주객이 사라진 이 자리는 울을 것도 없고 그를 것도 없으며, 낮은 곳도 없고 높은 곳도 없다.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써 오가는 인연에 집착 없이 세상을 통찰해 부처님 삶으로써 어떤 곤란이나 역경에도 영향 받지 않는 것이 '적멸인(寂滅忍)'으로서 올바른 '인욕'이다. 이런 지혜가 생긴다면 욕심내고 성낼 마음이 있을 수 없다. 욕심이 없고 성내는 마음이 없어 모든 경계에서 인연 따라 중생을 자식처럼 아껴주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부처님의 무언자비다. 중국의 부대사(傅大士)는 계승으로 말한다.

忍心如幻夢 辱境若龜毛 常能作此觀 違難轉堅牢 無非亦無是 無下亦無高 欲滅貪瞋賊 須行智慧刀

참는 마음 꼭두각시 꿈을 꾸는 일 / 욕을 보는 이 현실은 거북이의 털 / 언제나 이런 경계 볼 수 있다면 /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 없다.

그런 것도 울을 것도 없는 것이고 / 낮은 곳도 높은 곳도 없는 것이니

욕심내고 성난 마음 없애려 하면 / 모를지기 바른 지혜 닦아야 하네.

■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llust.org)

고요한 마음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탁발(托鉢)

불교의 나라, 태국. 최근 남부지역 스님들이 무슬림 분리독립주의자들의 테러 위협 때문에 탁발을 잠정 중지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남부불교권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스님들이 줄을 지어 탁발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잖습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탁발은 발우. 그러니까 스님들이 '밥그릇'을 가지고 마을에 가서 음식을 얻는 의식입니다. '결식(乞食)' '두타행(頭陀行)'이라고도 합니다. 두타행은 의식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는 수행으로, 청빈한 생활과 무소유의 생활을 뜻합니다. 결식을 통해 자신의 아만심을 없애버리고 동시에 보시하는 이의 복덕을 길러주기 위해 탁발을 하는 겁니다.

탁발은 초기 인도불교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스님들은 하루 한 끼 오전에만 공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찰에서 직접 밥을 지어 공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채로 마을로 가서 밥을 얻어 가지고 와서 공양

했습니다. 그럼, 왜 오전에만 탁발을 했을까요? 인도는 오후가 되면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덥습니다. 폭염이 내리칩니다. 그래서 오전으로 탁발을 한정했 겁니다. 물론 수행은 오후 시간대에 했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 같은 데에서 보면, 동남아시아 불교권 스님들이 발우를 엮구리에 끼고 하루 한 끼 오전에 결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불교가 중국, 한국 등지로 전파되면서 각 지역의 풍토와 습관에 따라 탁발의 형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2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9강 먼지이면서 먼지가 아닌

혜능의 해석이 '실천적' 혹은 체험적 지평을 넓혀 고수한다고 한 바 있다. 지금 13장의 '먼지는 먼지가 아니다. 그래서 먼지라고 한다.'를 두고 한 혜능의 해석은 이렇다. '이 맑은 넘님이 받아버려떨을 올바른 수행함으로써 뿌옇게 어지럽던 상념과 천방지축하는 의지의 파편들이 차분해지고 투명해지는 것을 가리킨다. 즉, '그래서 더 이상 먼지는 없다.'는 뜻이다.'

먼지는 먼지가 아니다 맑은 즉 그러하나, 실지(實地) 여기까지 가기는 정말 어렵다. 밖을 향해 허덕대기를 멈추어야 하고, 밖으로부터 받는 자극에 초연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평안이 곧 자적인 사회에서 자극에 초연하기는 정말 어렵다.

여기 외람되지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다. 욕망도 먼지도 제거하려고 들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지눌 스님도 <수심결>에서 '흙을 돌로 누르듯이 망념을 제거하려 들지 말라. 그만큼 위험한 시도가 다시 없다'고 경계하셨다. 그럼 어떻게 것인가. 내 생각에 세 가지 길이 있다. 1) 욕망이나 먼지나 앞뒤 차단하고, 그 관성을 성찰하는 혜능식 '좌선'을 통해 먼지는 가라앉는다.

지관타좌(只管打坐), "다만 앉으라." 2) 두 번째 길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다. 경쟁적이지 않은 길은... 사람을 피곤하지 않게, 세속적 가치와는 다른 이데올로기 예술적 가치나, 보람을 주는 일을 찾아 거기 매진하는 것... 남들이 하찮게 여겨도 좋다. 자기만의 가치, 자기만의 삶을 몰두할 때, '그 자체로' 즐겁고 보람있을 때, 거기서 곧 열반이고, 자유다. 이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보시나 헌신, 봉사 등 통해 얻는 기쁨도 들어있다. 3) 세 번째가 종교적 전향이다. 영혼의 자유와 기쁨이 주는 행복은 세속의 물질이 한시적이고 타자적인데 비해, 그리고 그 '물질'들이 쉬 효용이 떨어지거나 자기파괴적이기 쉬운데 비해-소피즘 중독같은 것, 마약이나 과도한 성(性)적 방종, 권력에 대한 맹목적 집착같은 것이 그렇다-이 영혼의 기쁨은 내면의 인정에서 의면과 타자로 펼쳐지는 잔잔한 명상으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전체에 휴식을 제공하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 그 힘이 동심원으로 물결치고, 교제하면 어느덧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 힘은 바이러 스템처럼 빠르고, 한꺼번에 세상 전체를 물들이고 바꾸어놓는다.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믿지 않는다.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가령

정형종의 시들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셋을 동시에 추구하면 큰 시너지 효과 낸다. 틀림없다. 문제는 다시 훈련이다.

그래서 먼지라 한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하는 삶이 될 것인가. 상념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렇지 않다. 조주는 회고의 경지로 '불꺼진 화로, 먼지덮인 사당'을 읊는 제자의 자부애 혀를 끝까지 찔다. '쫓, 지옥에

된다.' 먼지가 해방으로, 그리하여 보냄으로 활동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불교가 설정한 이념, 즉 자리아타의 정신이다. 그때 먼지는 '내게' 자기 의식적 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아(無我), 의도와 콤플렉스가 배제된 행태의 정결한 의욕이 활약하는 곳, 여기가 바로 '그래서 먼지라고 한다'는 자리이다.

먼지가 아닌 것과 먼지가 있는 곳의 두 단계 스텝을-일지로는 한 스텝인데- 눈여겨 보아주시기 바란다. 혜능의 해설을 다

來法身, 普現塵刹, 應用無方, 是名世界." "여래가 말씀하시길, 중생들의 몸(身) 안에 있는 망념들은 삼천대천세계 안에 들어찬 먼지들같다고 했다. 중생들은 예외없이 망념의 먼지들을 덮어쓰고 있는데, 그것들은 쉼 새 없이 일어났다가 스러지며 불성을 가로막고 해탈을 방해한다. 만일 넘님이 받아 버려떨을 올바른 수행하고, 무착(無著) 무상(無相)의 행(行)을 닦아 나갈 수 있다면 먼지처럼 뿌옇던 망념들이 어느덧 정정한 법성

망념이 공적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세계가 아니라 한다'고 했다. 여래법신을 증득하여 널리 수많은 세계에 자유롭게 나투길래, '이를 세계라고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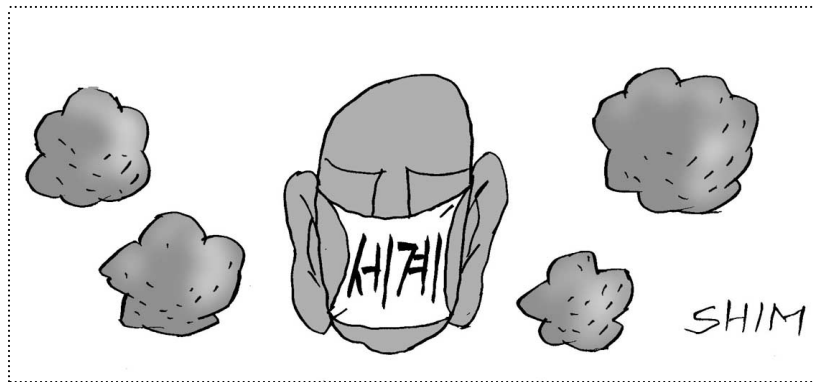
먼지로 만든 세계

여기 '세계'는 먼지들의 집적물, 혹은 결과물이다. 내 의식의 수많은 뿌연 먼지들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계'이다. 이것은 자기 의식의 상관물(相)이기에 객관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선 삼계유식(三界維識)이라 외친 것도 바로 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보통사람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사태의 체험적 확신이었다. 고로, 먼지가 없으면 세계는 자신의 모래성, 신기루를 허문다. <금강경> 맨 마지막에 적은 '꿈같고, 그림자같고, 물거품같고, 이슬같고, 번쩍이는 순간같은...'(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이 바로 이 소식을 재삼 확인해 주고 있다. <회엄경>도 따라 말한다. "마음이 생기면 중풍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는 곳에, 종종의 법이 사라진다(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으로 하여 출몰하는 법의 총체적 상(相)인 세계가 사라진다.

여기 유의할 것이 있다. 상(相)이 사라진다는 것은 심리적 구성물의 해체일 뿐,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물과 공기, 햇빛과 바람, 그리고 나와 더불어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과 공동체까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實際)한다. 그 속에서 내 먼지와 내 세계로 하여 족쇄되었던 것들이 우르르 감옥문을 열고 자유를 얻을 것이다. 거기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난다. 혜능은 <금강경>이 지금 말하는 "그래서 세계라 한다"는 뜻의 깊디깊은 의미라고 전해준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불꺼진 화로, 먼지덮인 사당



시 인용한다. (혜능 13-3)

"如來說, 衆生性中妄念, 如三千大千世界中所有微塵, 一切衆生被妄念微塵, 起滅不停, 遮蔽佛性, 不得解脫. 若能念念眞正修般若波羅蜜, 無著無相行, 了妄念塵勞即清淨法性, 妄念既無即非微塵, 是名微塵. 了眞即妄, 妄即眞, 眞妄俱泯, 無別有法. 故云, 是名微塵. 性中無塵勞即是佛世界, 心中有塵勞即是衆生世界. 了諸妄念空寂, 故云非世界. 證得如

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궁극적 의미에서 망념이란 없기에, '먼지가 아니다. 그래서 먼지라 부른다'라고 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진짜라고 붙든 것이 망념된 것이고, 망념된 것이 기실 진짜라는 것을 알아, 진짜와 망념이 함께 스러져 다시 다른 구분(法)이 없다! 그래서 '이를 먼지라 이룬다'고 말했다. 내 몸(身)에 아무런 진로(塵勞)가 없는 것이 곧 부처의 세계이다. 마음 속에 진로가 있는 것이 곧 중생의 세계이다. 여러